

##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워크숍

# 이슬람혐오 사태를 통해 본 한국내 인종차별, 그리고 인권활동가 연대

2023. 10. 7.(토) 13:00-15:30

주관: 지역인권보장체제를 위한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 배경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건 이후로 한국 사회는 부쩍 외국인에 대한 혐오, 특히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인종차별과 혐오의 움직임이 도드라지게 가시화되었다. 2021년 아프가니스탄의 특별 기여자 입국 상황에서도 인종차별과 이슬람에 대한 혐오가 끊임없이 등장하였다. 코로나 시기 등장한 외국인 혐오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의 건강권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요인이 될 뻔했다. 2020년경부터 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신축 문제는 우리나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외국과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혐오와 차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또한 우리나라 사회에 다양한 영역에서 혐오와 차별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전국의 각 지역 활동가들은 어떻게 이러한 차별과 혐오에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연대의 활동을 전개해나갈지를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저항과 연대 활동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혐오에 대한 연대의 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 목표

1. 각 지역별 또는 분야별 인종(외국인/이슬람문화) 차별과 혐오적 상황을 공유한다.
2. 각 지역별 또는 분야별 인종(외국인/이슬람문화) 차별과 혐오에 대한 대응 노력을 소개, 공유한다.
3. 연대 활동에 대한 각 지역 인권활동가들의 고민과 제안을 듣고 토론한다.
4. 인종(외국인/이슬람문화) 차별과 혐오에 관한 실질적인 연대 방식과 실천점을 모색해 본다.



## 중점 논의사항

1. 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신축 관련 외국인/이슬람 혐오 상황 및 문제점
2. 외국인 보호소 내 인권상황 공유 및 대응 (전라 여수 또는 관련 단체 활동)
3. 외국인 학생(유학생)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현황과 대응
4. 아프간 난민 자녀들의 울산 지역 적응기, 현황
5. 제주 예멘 난민들, 그 이후
6. 각 지역 인권활동가들의 고민 나눔과 연대 방식 토론

